

##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심사 총평

2024년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16일간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본선 경연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각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 경연까지 뜨거운 연극 혼을 불태운 전국 16개 대표 극단들의 열정과 노고에 같은 연극 동지로서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창작 초연 4편과 번역극 3편, 기존 창작극 9편이 각축을 벌인 금년 연극제에는 전쟁과 평화, 한국 근대사의 혼돈과 아픔, 역사적 인물 재조명, 재개발과 소외 계층의 비애, 가족사의 비극과 희망, 얽히고설킨 인생사 등을 소재로 언어 위주의 근대적 사실주의부터 대한민국연극제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움직임과 이미지 중심의 서사극, 심지어는 AI의 도입까지 다양한 공연이 관객의 공감대를 자극하였습니다. 아마도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상 작품의 해외 진출이 계기가 되어 '한국적 리얼리즘'이라는 표현적 특성을 벗어나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연극 언어를 찾아보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자의 익숙함을 넘어 지속적이고 창의적 활동으로 한국 연극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모든 연극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작품들은 아직도 이야기 전달이나 캐릭터 형성에도 미흡한 공연 결과물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본선에서 지향하는 현대적 표현과 질을 고려한 지역 예선을 위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예술감독제를 통한 정확한 주제 전달 또는 예선심사위원 지원으로 양질의 작품이 공정한 경연을 통해 전국의 관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역과 본부의 유기적인 시스템 확립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심사는 희곡의 우수성, 연출의 창의성, 배우들의 기량과 앙상블, 공연의 완성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연극제에서 우려되었던 마이크 사용 문제는 갈수록 발전되는 무대·조명·영상·음향 효과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금년 연극제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모두가 각 단체의 두 번째 공연을 함께 보고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심사위원들은 한국 연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재조명하고, 깊고 긴 토론 끝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주제로 창의적 사고와 현대적 감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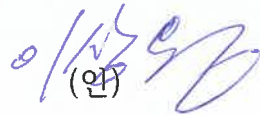
돋보이는 작품을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 연극의 특징점을 고려하는 것뿐 아니라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K-씨어터를 개발하고 지원 하는데 앞장서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연극제가 각 지역의 대표 작품을 선보이는데 머물지 않고, 좀 더 확장된 관객층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정된 수상 기회 때문에 모두가 즐겨야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극축제가 경쟁의 장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여한 모든 연극 동지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2024.07.15.

심사위원장

이상용

  
(인)

심사위원

박혜선

  
(인)

심사위원

Sasho Dimoski

(인)

심사위원

윤봉구

  
(인)

심사위원

윤여성

  
(인)

심사위원

이일섭

  
(인)

심사위원

정운봉

  
(인)